



제2368호 2024. 9. 29. **연중 제26주일 ·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제1독서 : 민수기 11,26-29

제2독서 : 야고보 서간 5,1-6

복음 : 마르코 복음서 9,38-43.45.47-48

사랑 안에 안을 위한
음성변환을 비젠프드

발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

주소 : 03083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58 가톨릭 청소년회관 내 '작은마음'

이메일 : chota_littlemm@naver.com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마르 9,40



© 2024 Gabriela

그림_가브리엘라 수녀님

오늘의 미사

✦ 화답송

✦ 복음 환호송

✦ 영성제송

◎ 주님의 규정 옳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소서.

◎ 알렐루야.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백성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2024년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의 주제)

교회는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인 오늘 하느님의 가장 귀한 피조물인 우리가 서로를 하느님 창조의 눈길로 돌보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함께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특pecially 자신의 고향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주민과 난민’들을 기억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는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을 맞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가 필요한 이웃인 이주민과 난민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바칠 수 있어요.



이주민을 위한 기도

모든 인류의 아버지이신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저희와 함께 살아가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고국과 가족들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주민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세상에 만연한 차별과 편견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이주민들을 위로해주시며,
빈곤과 폭력과 박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난민들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의 땅으로 인도해 주소서.

또한 우리 모두가 이주민들과
서로 한 형제임을 깨닫고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서로를 환대함으로써
정의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일치의 성령을 보내주소서.

이 땅에서 이주민과 난민으로 살아가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2017년 3월 24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인준)



물 한 잔의 작은 친절

† 찬미 예수님!



6지구 청5동 성당
신주환 안셀모 신부님

작은마음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중 제26주일로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입니다. 이주민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고향이나 거주지를 떠나 다른 나라나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난민은 이주민과 달리 스스로 원해서가 아니라 전쟁이나 박해를 피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고향을 떠나 고향에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신부님도 신학생 시절에 오랜 기간 다른 나라에서 공부하며 이주민으로 생활했던 경험이 있는데 고향을 떠나 다른 곳에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얼굴도 생각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니 외국인이라는 차별도 겪어야 했고, 낯선 곳에서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어려움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부님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어려울 때 먼저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무사히 공부를 마칠 수 있었지요.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누군가를 차별하고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제자들에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 작은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작은마음 친구들! 신부님이 하느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마실 물 한 잔이라도 건네주던 친절한 사람들 덕분에 먼 외국에서 기쁘게 생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먼 나라에 와서 어려움을 겪으며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만난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 작은 친절을 베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주민과 난민은 약 260만 명이라고 해요. 우리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 ① 생김새나 말투가 다르니 차별해요.
- ② 친절하게 대하며 더불어 살아가요.



제1차 세계 어린이의 날 World Children's Day 기념

제29회

작은마음 잔치

날짜는 언제?

10월
20일

장소는 어디냐?

명동성당

작은마음 친구들~
작은마음 잔치에서
만나요~!



전주교 시골대교구
청소년국 조동부



전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전주교의정부교구
청소년사목국